이슈브리프 Issue Brief

NO. 08
2020.06.26.

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배덕상 /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배경과 목적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음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 요망

정책제안

- 인천은 ❶가칭 "인천투자공사" 설립, ❷포괄적 인센티브 제공, ❸도시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발전시킬 시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향후에는 금융 산업 유치 관련 비교 우위 가능
- "인천투자공사"는 인천 내 데이터센터 등 기반산업 개발, 벤처기업 발굴 등 투자를 적극 집행하여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 기능 수행
- 국내외 기업 유치 관련 매출, 비용, 금융 관련 포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도시 대비 인천 경쟁력 차별점 구축
- 도시환경 개선으로 고급 인력이 인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제어 : 홍콩 국가안전법, 홍콩 경제 상황, 데이터센터, 금융 산업, 인천 경쟁력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1 홍콩 국가안전법 배경, 파급 효과, 경제 상황

● 국가안전법 추진 배경

❑ 중국 중앙정부는 2019년 대규모 소요사태가 국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킴

- 법률 입안 절차: 전인대 전체회의 결정→전인대 상무위 입법→홍콩특별행정구 공포
- 현재 결정단계이며 후속 마무리 후 국가안전법 효력 발생

❑ 국가 핵심이익 침해 해소 및 시위에 따른 사회 혼란 중단 필요성 등의 이유로 동법 추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 국가 핵심이익: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 중앙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에서 표출된 홍콩 독립 및 일국양제 부정 구호, 외부 세력 개입 등이 국가 핵심이익의 전 사항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

❑ 주요 내용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 관련 처벌

- 제1조: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처벌”이 명시됨. 금융 규제 강화, 여론 통제 등이 예상
- 제4조: “정부는 홍콩 내에 국가안전 기관 건립”을 포함시킴. 자치권에 부정적 영향 발생

● 주요국 반응

❑ 미국 및 미국 동맹국은 우려, 중국 우호국은 동조 표방

[표 1] 주요국 반응

구분	국가	주요 반응
미국 동맹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는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
	EU,영국,일본	▸홍콩 주권 반환 시 보장한 일국양제 원칙 준수 촉구하나 각 국가별로 경고 수위는 다르게 설정
	타이완	▸사안에 대한 공식 논평 없음. 단,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타이완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하는 주장이 제기
중국 우방국	북한, 미얀마 등	▸북한, 미얀마, 베트남, 탄자니아 등은 중국 중앙정부의 조치는 주권에 기초한 합법적 조치임을 표방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 제재 가능 조치 및 파급 효과

❑ 제제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 후, 미국은 “특별지위 철폐” 및 “자유 억압 개인 징벌” 관련한 조치 가능

- 특별지위 철폐: 홍콩인권법 의거하여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 철폐에 따른 제제이며, 관세 철폐와 비자 발급 제한으로 구성
- 자유 억압 개인 징벌: 홍콩의 자유를 억합하는 개인에 부과하는 징벌. 해당 개인에게 비자 발급 제한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징벌적 조치를 부과

❑ 특별지위 박탈 시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 미국 및 중국 간 중개무역 주선 축소로 홍콩 경제 악화 가능성 상존(The Diplomat(2020(a)))

❑ 결론적으로 홍콩의 경제 지정학적 위치 고려 시 주변국(싱가포르, 타이완, 한국, 일본)에 긍정 및 부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특히, 한국의 경우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적극적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대응 전략 개발 필요

[표 2] 제제 종류 및 파급 효과

제제 종류		제제 방법	파급 효과
특별지위 철폐	관세 철폐	▸본토와 동일한 고율 관세 부과 (현재, 홍콩: 1.6%, 본토: 25%)	▸(국내) 영향 측정 불가 미국 재수출 비중이 1.7%로 낮음. 단, 홍콩을 무역 기지로 활용 못하는 한계에 따른 부작용 상존 ▸(홍콩) 파급효과 높음 본토에서 홍콩 우회 미국에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절감 이익 감소
	비자 발급 제한	▸현재 홍콩 주재자 및 미국인은 상대국 무비자 입국 가능함. ▸까다로운 비자 취득 절차로 행정 비용 및 소요 시간 증대	▸(국내) 관계 없음 ▸(홍콩) 파급효과 높음 왕래 어려움으로 홍콩 비즈니스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음
자유억압 개인징벌	비자 발급 제한	▸비자 발급 금지	▸(국내) 관계 없음 ▸(홍콩) 파급효과 높음
	자산 동결	▸미국 내 자산 동결	▸(국내) 관계 없음 ▸(홍콩) 파급효과 높음 단, 중국 내 미국인 자산도 동결될 소지가 있어 현실적 대안은 아님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 현 홍콩 경제 상황

❑ 국가 신용등급, 환율 및 CDS(국채부도율) 프리미엄 추세로 홍콩 경제환경 확인

❑ 2019년 시위 장기화로 홍콩의 국가 신용등급이 1등급 저하(AA2→AA3)*. 신용평가기관에서 홍콩 신용도 조정 관련한 메시지를 표방하지 않는 점을 착안 시 현 근래에 추가 저하될 가능성 미약(Moody's(a))

- 홍콩 신용등급 추이('88~'20): 최고(AA1, '10~'16), 최저(A3, '89~'03), 평균(AA3) (Moody's(웹사이트))
- 동 기간, 한국의 신용등급은 최고(AA2, 현재), 최저 A3('97), 평균(A2)
  현재 주요국 신용등급 관련,미국(AA3), 일본(A1), 타이완(AA3), 싱가포르(AAA)

❑ 환율 관련, 미국달러 대비 홍콩달러의 환율은 안정적이며,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한 자본 이탈은 없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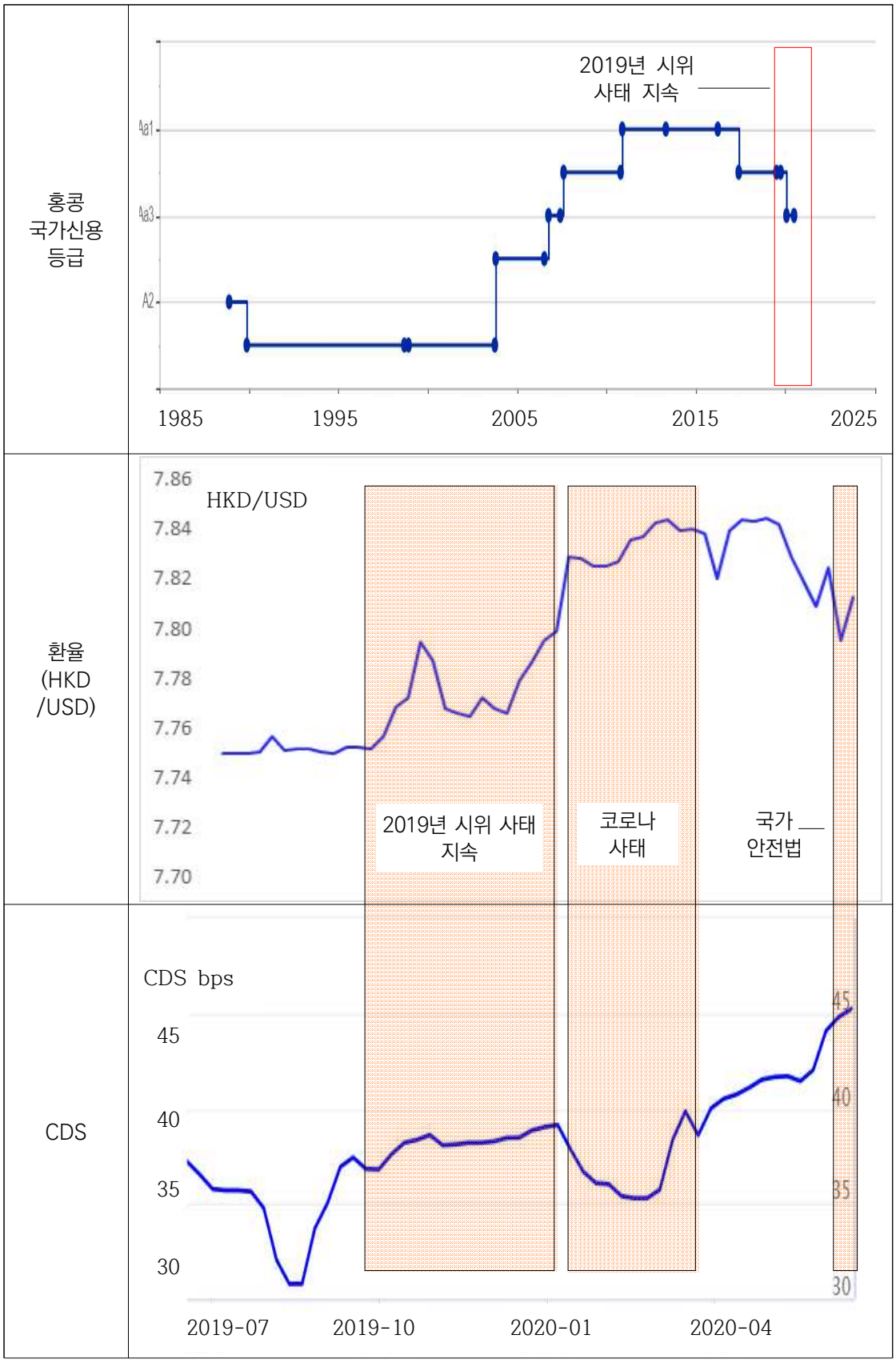
- 미국 달러화 관련 홍콩달러는 페그제(HKD/USD Band=7.75~7.85)로 연동됨. 급격한 달러화 유출로 인한 자본 이탈 발생 시 페그제 붕괴 가능성 높음
- 2019년 시위 사태로 7.76→7.82 홍콩달러로 상승. 코로나 사태 및 정치 불안정 지속으로 한 차례 더 상승한 후 현재 7.80~7.82 홍콩달러를 유지 중. 국가안전법 이벤트 관련 환율의 급격한 변화 미 식별(Yahoo Finance)
- 현 사태 관련 홍콩 거시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Aljazeera(2020))

❑ 안정적 환율 흐름과 달리, 홍콩 국채 CDS 프리미엄은 국가안전법 전후 지속 상승 중임. 금융시장은 본 사태를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 2019년 시위 사태 및 코로나 사태로 CDS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지만 큰 흐름 상 점진적으로 상승(World Government Bonds)
- 2020년5월 부터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및 국가안전법 제정 이슈 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CDS 상승 추세 가속화

❑ 결론적으로, GDP, 국가 신용등급, 환율, CDS 등의 거시지표 등을 살펴볼 시 본 사태 관련 단기 영향도는 미미할 수 있으나 중장기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금융시장은 전망

[그림 1] 현 홍콩 경제 거시지표



자료: 등급(Moody's(웹사이트), 환율(Yahoo Finance), CDS(World Government Bonds)

3 급변 시 이전 가능성 높은 사업 식별

● 홍콩 GDP 구조

❑ 2019년 시위 사태 전 홍콩의 GDP 실적지표는 양호하였으나, 시위사태 후 정치 불안정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홍콩 거시경제 수축 예상(Moody's(2020(b))

❑ 지역기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물류, IT, 금융 5가지로 대분류를 조직함. 연도별 각 산업별 GDP(경제규모) 비중은 큰 차이 없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지역기반 상품 및 서비스업임. 다음으로, 금융업 및 무역업이 각 20%의 비중

- 지역기반 상품 및 서비스: 농수산, 광업 등 현지 지역민에 의해 생산되고 지역민 만을 위해 소비되는 기본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지칭함. 국가 기반 경제 기능을 담당하며, GDP의 과반 이상 비중을 점유
- 무역: 중개 무역을 의미함. 홍콩 진출기업은 홍콩 특수지위에 따른 미국으로 수출 시 저율(1.6%) 관세 이점 및 부가가치세 환급(최대 17%) 활용 가능
- 물류: 동남 및 동북 아시아 주요 도시의 중간 지점에 홍콩이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전개. 특히, 항공화물 세계 1위 및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등의 최첨단 물류 인프라 경쟁력 보유
- IT 및 금융: 홍콩에 경제 거점을 설치 후 IT 및 금융서비스를 본토에 제공

[표 3] 홍콩 GDP 구조

No	구분	포함내역	연도별 실적 백분율 (%)		
			2016	2017	2018
1	지역기반 상품 및 서비스	농수산, 광업, 제조, 유틸리티, 건설, 도소매, 숙박 및 식품업, 부동산, 공공서비스	55	54	54
2	무역	수출입 무역 서비스	18	18	17
3	물류	운수, 창고, 우편 서비스	6	6	6
4	정보통신	정보통신 서비스	4	3	3
5	금융	은행, 증권, 보험업	18	19	20
합계			100	100	100

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홍콩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2017년 기준 세금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버뮤다 제외 시 실질적 홍콩向 FDI 1위 국은 중국이며 2017년 FDI 투자 비중 중 21% 유지

- 2017년 홍콩에 유입된 FDI 규모는 1,106억 미국달러이며, 동년까지 누적 투자액은 1조9,439억 미국달러임 (동년 한국에 유입된 FDI는 179억 미국달러이며, 누적 투자액은 2,294억 미국달러)

❑ FDI 투자 산업 관련 금융과 관계된 산업(금융 및 부동산 투자, 은행, 보험)은 2017년 기준 80%, 무역 및 도소매업 6%, 건설 3%, 정보통신 1% 비중

❑ 홍콩 금융산업 성장 및 FDI 유입 대표적 요인은 ❶친 비즈니스 제도 운영과 ❷중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임

- 친 비즈니스 제도 운영: 철저한 개방성 및 규제의 최소화로 세계 경제자유도 1위 (한국은 33위)임. 법인세 17.5%, 소득세 16% 등 세금 부담 낮음.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보유
- 중국과의 경제통합: 2019년 알리바바, 2018년 샤오미가 홍콩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실시하는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이 홍콩을 세계 경제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으로 활용 중임. 이와 같은 본토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금융산업 FDI 성장

❑ 정보통신 산업은 1%대로 낮으나 핀테크 활성화, 빅데이터 플랫폼 보급 등으로 데이터망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FDI가 지속 증가

- IT 네트워크 이용 증가 대처를 위해 2018년 데이터센터 면적이 40만에서 44만 제곱미터로 증가함. 구글은 2018년 홍콩에 데이터센터를 개설 및 현재 운영 중
- 비대면 거래에 따른 서버 증설 필요성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4] 2017년 홍콩向 FDI

No	주요투자국	투자비중(%)
1	버진아일랜드	38
2	중국	21
3	케이만제도	19
4	싱가포르	10
5	버뮤다	2
6	일본	2
7	미국	1

No	FDI투자된 산업	투자비중(%)
1	금융 및 부동산 투자	62
2	은행	15
3	무역, 도소매	6
4	건설	3
5	보험	3
6	정보통신	1

자료: Santander Trade

⬢ 이전 가능성 높은 산업 – 정보통신(데이터센터)

❑ 국가 안전법 제정 및 발효에 따른 데이터 검열 강화 가능성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 산업이, 미국 제제 흐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South China Morning Post(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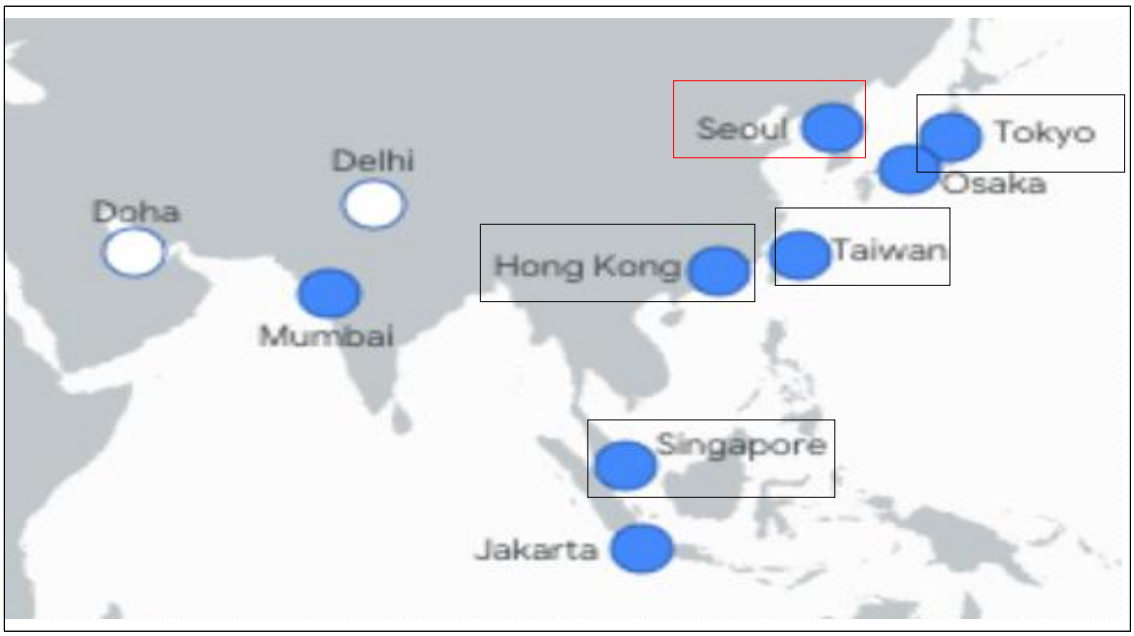
❑ 정보통신 관련하여, The Diplomat(2020(b))은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으로 본토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검열이 시작되는 것을 우려함. 검열 강화 시 개인정보 보호 약화, 정보 접속 제한 등으로 인터넷 활동 위축될 가능성 상승

- 중국의 데이터 소비량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폭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터넷 검열 등의 이유로 구글 클라우드 센터가 중국 내에는 현재까지 미설립
- 본토 내 데이터센터 용량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지만, 외국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투자에 기인함. 현재까지 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진출한 사례 없음

❑ 중국의 사례 등을 고려 시 고객의 IT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를 홍콩 외로 이전시킴으로써 검열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현재,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국가 간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므로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주변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함. 이전 관련 비용을 고려 시, 현재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하나 주변국에 신규 투자분을 집행할 가능성 높음
- 단, 망 설치 및 운영 서비스업은 내수산업 기반이므로 국외로 이전될 가능성 희박

[그림 2] 구글 클라우드 위치



자료: Google

⬢ 이전 가능성 낮은 산업 – 금융

❑ 홍콩 주식시장은 2019년 372억 미국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실시하였으며 세계 최대임. 2018년에도 369억 달러의 IPO 실시(KPMG(2019)). IPO의 지속적 증가는 관계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원동력

- 2019년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IPO 기업 중 60%가 본토 기업(Deloitte(2020))
- 2020년 홍콩은 경제 자유도 전 세계 2위(美헤리티지 재단(2020))
- 2019년까지 세계 1위였으나 하향됨. 주요 원인은 정치 불안정 지속임 (한국은 25위)

❑ 정세 불안정 심화로 금융 전문인력 유출 및 자금 대량유출 등의 우려가 커짐. 그러나 홍콩 정부 대응능력 및 본토 기업에 의한 홍콩 금융시장 성장세 등을 감안 시 단기적으로 홍콩 진출기업의 주변국으로의 이탈 가능성 낮음

- 중국 본토를 상대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홍콩 이탈 가능성 낮음. 만약,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로 홍콩 경쟁력 악화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은행 철수 가능성 배제 불가

[표 5] 현재 상황 및 홍콩 정부 대응

종류	유출 원인	홍콩 정부 대응	현재 상황
인력유출	▸정치 불안정에 따른 실적 악화로 급여 인센티브 삭감 ▸미국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정치 불안정 축소를 위한 노력 진행 중	▸익스페디아, 맥쿼리 등 외국기업 오피스 축소 ▸2020년 기준 CBD지역 오피스 공실률 증가 (2.8%('19)→3.9%('20))
자본유출	▸정세 불안정 증대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외환 규제 강화 가능성	▸외환보유고로 통제 (4,413억 미국달러)	▸골드만삭스는 2019년 8월 40억 미국달러 이상의 자본 유출 예상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2020)

⬢ 이전 가능성 낮은 산업 – 컨벤션 및 레저

❑ 비대면 추세 강화로 전 세계의 컨벤션 및 레저 산업은 타격을 받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망한 산업이 아님. 홍콩의 정치적 환경이 아닌 산업 생존 그 자체에 초점 필요

- 코로나 사태로 디즈니랜드 및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전 세계 테마파크의 가동이 중단됨

❑ 미국의 홍콩 비자 규제 강화는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국 본토 방문객 증가에 따라 충격이 완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 불가

❑ 또한, 고정 시설물 의존 산업이므로 국외 이탈 한계

4 한국의 FDI 경쟁력

● FDI 환경 비교 – 일반 (한국 경쟁력 열위)

❑ 한국의 FDI 경쟁력 확인을 위해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과 비교함. 한국의 경우 R&D 능력 등이 우수하나 인적자원, 언어 분야 등에서 주변국 대비 열위

- 세계 순위: 한국은 FDI환경순위 17위, HDI순위 22위임. 싱가포르 및 일본 대비 열세
- 언어: 한국은 토익 기준 673점으로써 타이완 및 일본 보다 우위이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대비 열세임. 싱가포르 화교 및 타이완은 중국어 사용이 보편적임
- FDI실적: 싱가포르가 타 주변국 대비 압도적 우세
- 주요특징: 일본 및 한국은 R&D가 발달하였으나 높은 규제 강도로 경제 자율성이 낮음 싱가포르는 인력 및 금융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세율이 높음. 타이완은 중국 본토와 최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가 강점

❑ 결론, 일반 환경측면으로 싱가포르가 주변국 대비 우수

- 국내 언론: 홍콩 금융기관의 한국(부산) 이전 가능성 및 지리적 이점 등으로 영종도 수혜 가능성을 보도 (매일경제(2020), 아시아경제(2020), 연합뉴스(2020))
- 외국 언론: 아시아타임즈지는 강한 규제 등의 사유로 한국 및 일본으로 이전되기 보다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개방적인 싱가포르가 대안임을 기사화 (Asia Times(2020))

[표 6] FDI 제반 환경 비교

구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제반환경	FDI환경순위	17	12	25	4
인적자원	HDI순위	22	9	N/A	19
언어	TOEIC	673	영어 공용어	554	520
	중국어	불가	가능(화교)	모국어	불가
FDI실적 (2017년, $)	FDI유입	179억	757억	33억	104억
	FDI누적	2,294억	13,934억	939억	2,002억
	주요투자국	미국(35%)	미국(22%)	네덜란드 (30%)	미국(23%)
주요특징	장점	R&D 물류인프라	인력 금융인프라	지정학적위치	내수시장 비즈니스환경
	단점	규제 인건비	세율	중국관계 지적재산권	규제 폐쇄적문화

자료: 제반환경(Kearney(2020)), HDI(UNDP(2019)), TOEIC(ETS(2018)), FDI실적 및 주요특징(Santander Trade)

⬢ FDI 환경 비교 – 데이터센터 (한국 경쟁력 우수)

❑ 데이터센터 관련 한국의 FDI 경쟁력은 싱가포르와 거의 대등하거나 그 이상

- Cushman & Wakefield(2016)은 2016년 데이터센터 리스크 인덱스*에서 데이터센터 경쟁력 기준 싱가포르는 7위, 한국은 8위, 홍콩은 11위, 일본은 13위인 것으로 보고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10가지 요소인 에너지비용, 인터넷속도, 기업운영환경, 법인세, 정치 안정성, 대체에너지비율, 자연재해, 에너지보안, 1인당국민소득, 1인당가용수자원 등의 각 국가별 점수 산출 후 국가별 경쟁력 순위 집계

- 인덱스 지표 상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대비 에너지비용, 인터넷속도, 1인당가용수자원 항목에서 높음

- 인덱스에 미포함된 중국 본토 및 홍콩과의 접근성(인천공항 비행거리 2시간 이내), 자재 수급 편의성(메모리 반도체 등), 세계 1위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 시 한국은 싱가포르 대비 경쟁력 동등 또는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

❑ 2015년 이후 국내에는 아마존, 구글, MS 등의 IT기반 서비스업체와 더불어 에퀴닉스 및 리얼티 등의 데이터센터 리츠업체가 사업을 개시

- 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유행임(삼정KPMG(2019)).

- 현재 네이버, 삼성SDS 등의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을 감안 시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한국 시장이 부합함을 확인 가능

[그림 3] 데이터센터 리스크 인덱스 국가별 순위

자료: Cushman & Wakefield(2016)

● FDI 환경 비교 – 금융산업 (한국 경쟁력 열위)

❑ 롱파이낸스(long Finance)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 지수(GFCI 27)에서 한국의 서울은 33위로써 주변국 대비 낮음

- GFCI: 글로벌기업 CEO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도시별 랭킹을 공포함. 설문항목은 사업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정도, 명성 및 브랜드로 구성

❑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등으로 한국에서 조달되는 액수가 중국 및 싱가포르를 추월했지만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투자은행에 많이 의존

❑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기존 금융권), 부산(한국거래소), 전주(국민연금) 등으로 금융 기능 분산, 언어, 문화, 지리적 한계 등으로 한국이 아태지역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조선비즈(2020), 동아일보(2020))

- 외국계 금융회사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 감소

[표 7] GFCI 순위

구분	한국 (서울)	싱가포르	타이완 (타이페이)	일본 (도쿄)
총괄 순위	33	5	75	3
사업환경	15위권 이후	4	15위권 이후	15위권 이후
인적자원	15위권 이후	5	15위권 이후	11
인프라	15위권 이후	3	15위권 이후	3
금융산업 발전	15위권 이후	3	15위권 이후	10
명성 및 브랜드	15위권 이후	3	15위권 이후	6

자료: Long Finance(2020) (※ 15위권 이후 순위는 공포 안됨)

● FDI 환경 비교 – 컨벤션 및 레저 (한국 경쟁력 보통)

❑ 한국(서울)의 컨벤션 질은 주변국가 대비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레저 경쟁력은 주변국 대비 열위

[표 8] 컨벤션 및 테마파크 순위

구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컨벤션 순위	10(서울)	6	N/A	18(도쿄)
테마파크 수	0	1	0	3

자료: 테마파크 수(Disney, Universal Studios), 컨벤션 순위(ICCA)

5 인천의 경쟁력

⬢ 인천의 단기 발전 모멘텀을 위한 데이터센터 인천 유치 필요성

❑ 데이터센터 유치는 ❶직접 고용 창출, ❷연관산업 유입, ❸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인천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전북연구원(2020))

- 고용창출: 구글 등의 사례 참고 시, 운영기간 중 시설 구축 10억원 당 연간 1명의 직접 고용 창출 (건설기간 중 시설 구축 2억원 당 연간 1명의 직접 고용)
- 연관산업: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통신망 서비스가 데이터센터의 주요 연관산업임. 핀테크, 온라인 쇼핑센터, 데이터분석 컨설팅 산업 등의 유치 용이
- 지역이미지: 데이터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및 하이테크 연관산업 시너지로 도심 이미지를 IT산업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

⬢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인천 경쟁력 – 우수

❑ 인천은 부산 및 새만금 대비 전체적으로 우수하지만, 인력 수급, 관련업체 밀집도, 대도시 접근성 관련 용인 대비 낮음. 해외 접근성 관련 최우수 경쟁력 보유

- 전력 및 네트워크 인프라가 핵심요소이나 전력은 한전 네트워크 인프라는 SK, KT, LG등 대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질 제공가능한 것으로 가정
- 인력 수급: 삶의 질에 의해 부동산 지대가 형성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인력 수급 용이성 확인. 부산, 새만금 대비 인천의 지대는 높지만 서울 및 용인 대비 열위
- 관련업체 밀집도: IT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금융, 전자, 상거래 등) 관련. 하나금융타운이 청라에 건립되고 있지만 아직은 서울 및 용인 대비 열위
- 대도시 접근성: 수도권 주요 산업은 강남에 집중됨. 인천은 용인 대비 열위
- 해외 접근성: 송도 및 청라에서 인천공항까지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

❑ 높은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인센티브 제공(“6. 제언” 참조)시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이 타 경쟁도시 대비 높을 것으로 판단

[표 9]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인천 및 주요 도시 순위

구분	인천	서울	용인	부산	새만금
인력 수급	3	1	2	4	5
관련업체 밀집도	3	1	2	4	5
대도시 접근성	3	1	2	4	5
해외 접근성	1	2	3	4	5

자료: Intel(2014)의 데이터센터 부지 선택 방법론을 참조하여 자체 분석

● 인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활성화 필요성

❑ 현재, 홍콩 사태로 금융산업이 주변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중 갈등으로 중국 본토 경쟁력 약화로 홍콩의 지정학적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주변국으로 이전 가능성 높음

❑ 금융은 경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추산업으로서 모든 산업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와 금융 산업이 결합된다면 지역의 산업 체질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가능

● 금융산업 관련 인천 경쟁력 – 열위

❑ 그러나, 인천의 경쟁력은 타 주요 도시 대비 열위

- 금융산업 경쟁력 관련 도시 경쟁력은 주요 금융업체(시중은행 및 금융공기업)의 본사 및 핵심 기능이 위치한 장소로 간접적 확인 가능
- 서울은 금융기업 수 및 자금운용 규모 측면에서 독보적 1위임. 부산은 한국거래소 및 선반금융, 용인은 카카오뱅크 등의 핀테크, 전주는 국민연금 자금운용본부 유치
- 롱파이낸스의 글로벌 금융 중심 지수에 한국의 서울(33위), 부산(51위)가 포함됨. 그 외 도시는 순위 조사에 미 포함된 점을 감안 시 국제 무대에서 인천의 브랜드는 낮음

❑ 인천에 금융업체가 이전할 만한 동기 요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

- 인천의 다양한 개발 호재 관련하여 금융, 개발, 시공이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의 금융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을 성장시키지 못함

[표 10] 금융산업 관련 인천 및 주요 도시 순위

구분	인천 (송도,청라)	서울	용인(정자)	부산 (금융단지)	전주
금융업체 수	5	1	3	2	4

자료: 자체 분석

● 컨벤션 및 레저 관련 인천 경쟁력 – 열위

❑ 오피스 업무 단지 형성이 미약한 점 등 컨벤션 관련 경쟁력 부족

❑ 영종도 카지노 개발은 지역 레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단, 타 지역대비 문화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경쟁 도시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6 투자 유치 관련 제언

● 인천은 ❶가칭 "인천투자공사" 설립, ❷포괄적 인센티브 제공, ❸도시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발전시킬 시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향후에는 금융산업 유치 관련 비교 우위 가능

❑ 홍콩 이슈에 국한되어 정책을 설계하기 보다는 내외수 시장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모색 필요

❑ 또한, 외자 유치 관점이 아닌 내·외수 투자자 유치 관점 견지 필요

● [제안1] "인천투자공사"는 데이터센터 등 기반산업 개발, 벤처기업 발굴 등 투자를 적극 집행하여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 기능 수행

❑ 공사 성격: 한국은행의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투자 집행)와 국내기업의 해외 민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투자 설계)의 기능 융합

❑ 자금 집행: 민간 자산운용사에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인력을 공사에서 채용하여 인천시 소재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지원 등의 업무 수행

- 민간 금융시장은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어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 금융조달, 매각 등의 업무 수행
- 국내 연기금 다수는 자산운용사에 블라인드 펀드를 위탁하여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하게끔 함으로써 현재 낮은 채권 수익률을 보전 중
- 인천투자공사는 인천 지역 내 유망 산업을 적극 발굴 및 운영, 인천시는 규제 완화 등으로 적극적 행정 조력을 담당하여 업무 시너지를 창출

❑ 자금 조달 및 회수: 시작 초기 인천시가 자금조달하여 펀드 조성. 일정 수익률 달성되었을 시 펀드의 공모 상장 또는 리츠화 등 금융구조화로 민간 개인에게 지분을 매도하여 투자금 회수

- 공모 및 리츠화는 인천의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
- 기존 출시된 스타트업 발굴 엔젤펀드, 기술보증보험 등과 상호 연계하여 자금 조달 규모를 최대로 증대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

❑ 민간 자산운용사 및 공사 운용역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업무 성과 극대화 도모

● [제안2] 국내외 기업 유치 관련 매출, 비용, 금융 관련 포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도시 대비 인천 경쟁력 차별점 구축 필요

❑ 산업 유치 관련하여, 현재의 비용 인센티브 제공에서 매출, 비용, 금융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관점으로 변화 필요

- 경제자유구역 등 일반적 산업 유치 정책은 토지 대금 완화, 소득세율 하향 조정 등 주로 기업의 비용 절감에 초점
- 개도국 투자 시는 비용 절감이 목적일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 투자 시는 비용 절감이 아닌 고품질 상품/서비스 생산에 따른 매출 확보가 목적

❑ 단, 과도한 인센티브는 행정 부담 증대 및 사적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표 11]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인천시 역할 모색 예시

구분	현재 정책	개선 제안
비용	▸부동산: 개발관련 토지매입 대금 할인 또는 일부 부조, 기존 빌딩 임차 시 임대료 할인 ▸소득세: 특정 기간 감세	▸현행 유지 또는 개선
매출	▸부족	▸매출처 확보 관련 행정 지원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관내 수요 확인 등)
금융	▸부족	▸금융 구조화 시 행정 지원 (시 연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 [제안3] 도시환경 개선으로 고급 인력이 인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천은 송도 및 청라 지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구도심 개발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유리한 조건 보유

❑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 환경의 질에 연관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국내 및 외국 고급 인력이 인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참고문헌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한국무역협회(2020),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Moody's(2020(a)), Moody's downgrades Hong Kong's rating to AA3: changes outlook to stable

Moody's(2020(b)), Sovereigns - Asia Pacific: Regional credit outlook update on evolving coronavirus impact

KPMG(2019),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2019 review: IPOs and other market trends

Deloitte(2020), Update on HK Capital Market Landscape

美헤리티지재단(2020), Highlights of the 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

KDI 경제정보센터(2020), 홍콩의 금융중심지 지위 흔들릴까?

Kearney(2020), Entering the storm: anticipating risk in an uncertain world

UNDP(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ETS(2018), 2018 Report on Test Takers Worldwide

Cushman & Wakefield(2016), Data Centre Risk index

Long Finance(2020),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7

전북연구원(2020), 전라북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기대 효과 및 연계 방향

삼정KPMG(2019), 대체 투자의 새로운 기회, 데이터센터가 부상한다

Indel(2014), 데이터 센터 부지 선택: 인텔의 접근 방식

[신문기사]

The Diplomat(2020(a)), Hong Kong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hy Now?

Aljazeera(2020), Hong Kong says currency peg secure despite US-China dispute

The Diplomat(2020(b)), What Does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Mean for Tech Companies?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Hong Kong finance chief Paul Chan says city has nothing to fear from Donald Trump sanctions over national security law

Asia Times(2020), Why Japan, Korea won't ever replace Hong Kong

조선비즈(2020), "한국, 금융중심지 한계"… 10년만에 해외진출로 전략 변경

동아일보(2020), 콩서 발빼는 투자자들, 한국은 쳐다도 안봐…왜?

매일경제(2020), '홍콩 엑소더스' 영종도가 기회의 땅

아시아경제(2020), 홍콩이 불안하다 '홍콩 금융'을 부산에 데려오자

연합뉴스(2020), 홍콩 대신 부산으로...해외금융기관 유치 본격화

[웹사이트]

Moody's(웹사이트), 홍콩 국가 신용등급, http://www.moodys.com

Yahoo Fiannce, HKD to USD 환율, http://finance.yahoo.com

World Government Bonds, Hong Kong 5 year CDS,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National income, https://www.censtatd.gov.hk

Santander Trade, https://santandertrade.com

Google, Cloud Location, https://cloud.google.com/about/locations

Disney, https://disneyparks.disney.go.com/

Universal Studios, https://www.universalparks.com/en/us

ICCA, https://www.iccaworld.org/newsarchives/archivedetails.cfm?id=7436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